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Analyst 이선경 seonkyoung.lee@sks.co.kr / 3773-9089

SK증권 리서치센터

분할을 통한 각 사업부의 독립성 확보, 중장기적 성장에 긍정적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은 영업이익률 및 고객사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수주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 신설 법인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다년간 시밀러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체 연구개발 역량과 미래 사업 발굴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신약개발 회사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 다만 신사업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 확인은 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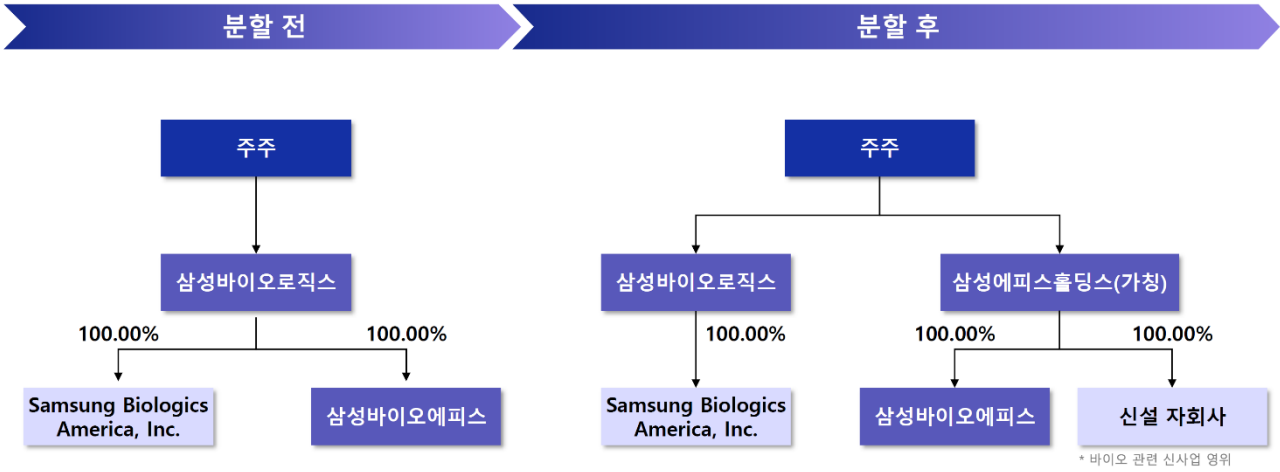
- 5월 22일, 인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에피소홀딩스(가칭)신설 계획을 공시, 신설 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 100%를 승계한 후 10월 1일 창립, 10월 29일 상장할 예정
- 분할 비율은 65:35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는 보유 지분에 따라 양사 주식을 해당 비율로 9월 30일에 배정 예정
- 분할 배경은 위탁생산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에피스가 하나의 실체로 인식됨에 따라 고객 및 투자자의 이해충돌 우려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리스크가 지속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회사별 독립 경영 강화 및 기업 가치 재평가를 위해 인적 분할 추진
- 인적 분할 추진을 위한 향후 주요 일정은 7월 29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9월 16일 분할 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 9월 30일 신주 배정, 10월 29일 변경 상장 및 재상장 예정이며, 변경 상장위해 9월 29일~10월 29일까지 주식 매매는 정지될 예정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대 축 성장 전략(생산 능력 확대, 모달리티 다변화, 글로벌 거점 확대)을 기반으로 고객사를 글로벌 Top 40으로 확대할 계획, 신설 법인인 삼성에피소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사업부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차세대 기술 분야의 발굴 및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예정

분할을 통한 각 사업부의 독립성 확보, 중장기적 성장에 긍정적

단기간 내 신설 법인의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향성 확인 필요

- 이번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은 영업이익률 확보 및 고객사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수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특히 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우려에서 벗어나 4공장 램프업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이해 상충에서 벗어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신약개발 회사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현재 27조원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다년간 시밀러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체 연구개발 역량과 미래 사업 발굴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신약개발 회사로 포지셔닝 가능하다고 판단. 다만 신사업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구조



* 주요 주주 : 삼성물산 43.06%, 삼성전자 31.22% 등 (25년 1분기보고서 기준)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SK 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개요

	존속법인	신설법인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 주식회사
사업부문	CDMO 사업부문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투자
주요 자회사	Samsung Biologics America, Inc. 등	삼성바이오페피스
분할비율	0.6503913	0.3496087
자본금	115,727 백만원	62,208 백만원
액면가액	2,500 원	2,500 원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46,290,951 주	보통주: 24,883,049 주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SK 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